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主幹 宋 藤
編輯部長 金澤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每週火曜日發行

敎員 新規採用및 再任命

——11日 尹理事長 辭令狀授與

李總長 "研究、學生指導에 萬全" 今年은 發展의 一大轉換點

금년도 신규채용및 再任命된 敎員에 대한 辭令狀 수여식이 지난 11일 오전10시 總長室에서 있었다. 尹潤重理事長, 李瑄根總長을 비롯 各學處長등이 參席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辭令狀수여식에서 새로 採用및 再任命된 敎員은 총 40名으로 職位別로 보면 敎授5名, 副敎授1名, 助敎授4名, 專任講師14名, 待遇敎授6名, 待遇副敎授1名, 待遇助敎授3名, 待遇專任講師6名 등이다.

이번 敎員 채용은 지난 2월25일 李總長의 제정에 따라 3월7일 理事會에서 議決, 4월4일字로 文敎部의 승인을 얻어 임명된것이다.

한편 尹理事長은이날 新規採用및 再任命된 교원에게 일일이 辭令狀을 수여한 다음 치사를 통해 『새로운 정신자세로 각자 專攻分野에 전념, 大學敎育에 바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李總長은 訓示를통해 『佛敎宗立學園인 本校의 建學理念에입각하여 연구활동 研究風土造成에 여러분은 精進해 달라』고 말하고 『東國學園의 새 가족이된 여러분은 단순한 수업에 만전을 기할뿐 아니라 책임성 있는 학생지도에 주력하라』고강조했다.

이어서 李總長은 개교71주년을 맞는 금년은 東國발전에 大 전환점임을 강조하고 『새로운 決意로 본교가 祖國中興에 이바지하는데 대학으로 더욱 발전하되어야 할것이 아니고 말부했다.

또한 학교당국에서는 이번 채용에서 正敎院에 근무할 직원도 아울러 임명했는데 敎法師에 金玹洪(法名·부진장)스님, 幹事에 權五斗(佛敎)씨 등이다.

다음은 敎員 명단이다. 再任命된 敎員 명단이다.

◇敎授(5名)
▲李海浪(國語學) ▲安在求(政學科) ▲徐敏根(經營科) ▲李東熙(農學科) ▲元炳徹(大學院)

◇副敎授(1名)
▲李淳哲(法學科)

◇助敎授(4名)
▲朱錫球(法學科) ▲孚珣(統計) ▲金慈英(農生科) ▲金慈全(敎育學科) ▲尊任講師(14名) ▲吳亨根(佛敎科) ▲李水子(佛敎科) ▲權奇宗(佛敎科) ▲洪起三(國文科) ▲朴進浩(行政科) ▲鄭文祺(電算科) ▲徐謙昭(造園科) ▲李武熙(電算) ▲白壽鉉(電算) ▲朴完榮(敎育學科) ▲金俊哲(體育科) ▲朴一錄(家敎科) ▲李鍾燦(敎育部)

◇待遇敎授(6名)
▲金基琓(體育科) ▲權九榕(政外科) ▲裴吉奎(美術科) ▲徐口眞(敎育學部) ▲鄭與燮(大學院) ▲申奭鎬(大學院)

◇待遇副敎授(1名)
▲金錫鉉(會計科)

◇待遇助敎授(3名)
▲洪淑子(政外科) ▲印權植(化學科) ▲千宗淑(法學科) ▲柳允京(電算科) ▲李茂雄(敎育學部) ▲白水哲(會計科) ▲徐國吉(佛敎科) ▲金仁濟(統計科) ▲金八健(體敎科)

지난11日 總長室에서 新規採用및 再任命된 敎員에 대한 辭令狀수여식이 있었다.

25일부터 中間考査실시

敎授재량으로 전과목 필기시험

77학년도 제1학기 중간고사가 오는 25일(月)부터 30일(土)까지 1주일간에 걸쳐 실시된다.

敎務處발표에 따르면 이번 중간고사는 2, 3년생은 실험·실습·실기를 제외한 전과목에 걸쳐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강의시간에 敎授재량으로 실시되며, 교양학부생은 전공과 기본교양과목인 불교학개론, 국어, 영어, 대수기하(文科 계열), 국사(인문계열) 등 5개과목으로 한정했다.

단 4학년생은 이기간중에 敎生實習관계로 考査가 없으며, 실습이 없는 학생은 강의를 받는다.

한편 敎務學部는 고사시간표는 20일경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經商大懇談會

特講問題등論議

經商大(학장=錢昌煥박사) 敎授·學生懇談會가 지난7일(木) 오후5시, 錢昌煥학장 趙旺鉉교학과장등 교수와 소대장급이상 간부 약3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생생한 분위기속에서 열렸다.

교수와 학생간의 對話축진을 통한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錢學長은 훈시를통해 『어려 간부학생들은 명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솔선해달라』고 당부했다.

敎授動靜

◇金基琓體育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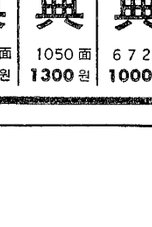
金基琓體育館長 留任

金基琓體育館長의 略歷은 다음과 같다.

◇略歷

▲1933년 東京體育專門學校卒 ▲1946년 民主議院副秘書長 ▲1949년 서울大文理大 교수겸 학생과장 ▲1955년 본교敎授로 부임 ▲1975년 본교敎授로 ▲1976년 본교待遇敎授로 본교 2대 體育館長에 金基琓待遇敎授가 4월11일자로 유임되었다.

本大 體育館運營委員會에서 결정하는 事項과 체육관사용시간배정, 館內의 시설및 기구의 관리, 체육관 이용허가, 대여및 운영계획등 체육관 전반에 걸친 업무를 4월18일부터 5월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와 파리의 文化界를 돌아볼 예정이다.


◇宋堯仁敎授

宋堯仁敎授 아랍등 親善訪問

本校 宋堯仁(文理大·英文科) 교수는 아랍친선 文化使節團(團長=毛允淑)의 일원으로 오는15일 출국, 약 2주간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와 파리의 文化界를 돌아볼 예정이다.

社告

第15회 全國男女高校生 文學콩쿠르

高校文學의 향연

本社에서는 開校 第71周年을 맞이하여 全國의 男女高等學校 文學徒들에게 創作意慾을 鼓吹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 民族文學의 豊成한 來日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要領으로 第15回 全國男女高校生 文學콩쿠르를 開催합니다. 每年 많은 文學徒를 발굴해 온 이 뜻있는 잔치에 많이 參加하여 榮光을 누리기 바랍니다.

◎作品募集種目
(가) 詩 …… 3篇이내
(나) 時調 …… 3篇이내
(다) 小說 …… 70枚이내
(라) 隨筆 …… 15枚이내

◎審査節次
高等學校에 在學中인 學生의 作品으로서 學校長이 推薦한 作品(推薦書同封하시기 바람)

◎施賞種目
1차 原稿審査에서 입선한 者는 個別通知하며 5월21일本校에서 열리는「白日場」에서 最終 入賞者를 결정한다.
▲詩部 …… ①當選 1편 (상장 및 부상)
②佳作 2편 (상장 및 부상)
▲時調部 …… ①當選 1편 (상장 및 부상)
②佳作 2편 (상장 및 부상)
▲小說部 …… ①當選 1편 (상장 및 부상)
②佳作 2편 (상장 및 부상)
▲隨筆部 …… ①當選 1편 (상장 및 부상)
②佳作 2편 (상장 및 부상)
※(1차 原稿審査에 합격한 者에겐 入賞狀과 副賞을 授與한다)

◎作品提出期間
1976년 4월18일부터 5월7일까지
直通 ⓐ8577
1977년 4월 일
東大新聞社

東亞出版社의 辭書群

辭書出版30年의 傳統과 權威 最新의 內容에 最高의 信賴度

高度의 學習效果와 廣範한 實用性을 兼備

동아 英韓廣辭典

新4·6判／印度紙2070面／金箔·洋裝·豪華케이스／값 3000원

學習과 實用을 兼한 辭典
國語廣辭典 2520面 3000원
英韓廣辭典 2070面 3000원
韓英廣辭典 2200面 3000원
漢韓廣辭典 2300面 3000원
日韓廣辭典 2300面 3000원

豐富한 內容·精密한 註解
新 콘사이스 國語辭典 1856面 2300원
新 콘사이스 英韓辭典 1792面 2300원
新 콘사이스 韓英辭典 1644面 2300원
新 콘사이스 英英辭典 1320面 2000원
新 콘사이스 英英韓辭典 1350面 2300원
新 콘사이스 獨韓辭典 1500面 2300원

English-English-Korean의 2重效果

동아 新콘사이스 英英韓辭典

3·6判／印度紙1350面／金箔·洋裝·豪華케이스／값 2300원

學習本位의 效率的 辭典
現代英韓辭典 948面 1300원
現代韓英辭典 1080面 1300원
現代獨韓辭典 870面 1300원
現代佛韓辭典 1050面 1300원
佛語學習辭典 672面 1000원

精選된 內容·簡便한 體裁
新英韓小辭典 736面 1000원
新韓英小辭典 1000面 1000원
新韓英英韓小辭典 1600面 1600원
新獨韓小辭典 782面 1000원
新活用玉篇 540面 800원

社告

男女修習記者募集

大學言論의 旗手

大學言論暢達에 先驅的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本社에서는 아래 要領으로 참신한男女修習記者를 모집합니다. 장차 言論界로 進出하고자 하는 뜻있는 學生들의 많은 應試를 바랍니다.

①募集人員=약간명 (寫眞·만화記者 포함)
②應募資格=本校1學年 男女在學生 (사진·만화記者는 2學年도可)
③제출서류=본사 소정양식 1통 (배부중) 명함판사진 1매
④원서접수=77년4月15日~4月22日
⑤시험일시=4月23日(土) 13時
⑥시험과목=國語·英語·常識·作文·面接
⑦제 출 처=본사 총무부
1977年4月日
東大新聞社

敎授動靜

女學生 特講

「知性과 敎養을 겸비한 大學生活」을 위해 매마다개최되는 「女學生 特別敎養講座」가 호국단(학생처장=安明淑·家敎4) 주최로 오는 16일(土) 오전10시부터 2층 玉耶室에서 학생회관 열린다.

이날 개최될강연회의 연사와 연제는 다음과 같다.
▲具鳳映 교수(敎明文大)=「사랑과 性」 ▲李仁浩(高大) 교수=「女性의 社會參與」

▲金仁鎬博士(敎務處長)=마포구 서교동372-9호(☎157-0)로 이사. ▲鄭允武博士(學生處長)=江南區반포동 산2-27번지(☎792-3)로 이사. ▲김성배박사(사범대)=오는 14일(木) 오후3시부터 연세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인어와 민족」을 주제로 강연예정.

社告

第14회 全國男女高校生 文學콩쿠르 入賞者

史學科 古蹟踏査
江華, 湖南일대서

本校 文理大史學科및 師範大 社會敎育科, 國史敎育科의 春季敎育踏査가 지난10日부터 12日까지 강화도 및 호남일대의 사찰을 中心으로 2泊3日동안 있었다.

▲黃藩永(博物館長)·安晉鎭(史學)·金昌洙(國史敎育)·홍영백(社會敎育) 敎授의 인솔로 史學科全員과 國史敎育科 1, 2學年, 社會敎育科 3, 4學年등 總50여명이 參加한 가운데 가진 이번 古蹟踏査에서는 江華島 廣寺洞 호남일대의 寺刹을 中心으로 진행되었다.

한편이들은 지난8日(金) 出發에앞서 史學科硏究室에서 黃藩永敎授로부터 踏査에 대한오리엔테이션도받았다.

學徒護國團 文藝部 가을 대글 懇談會

大學別特性 살려 意見모아

學徒護國團 文藝部(部長=金龍·國文4)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의 주요 討議內容은 ①각써클의 祝典行事計劃 ②東國人 동산대회 적극참여 方案 ③校內 環境化運動 自進참여 등이었는데, 특히 각써클의 祝典行事와 東國人 동산대회에 대한 의견제시가 많았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열렸던 1회의실에서 열렸다. 學徒護國團 文藝部 산하 각써클의 祝典行事 및 동산대회 적극참여 方案 境淨化運動 自進참여 등이었는데, 특히 각써클의 祝典行事와 東國人 동산대회에 대한 의견제시가 많았어 의견을 모았다.

會長에 金完基씨

經營大學院 同窓會

經營大學院(원장=許衛博士)에서는 지난 3월26일 세종호텔에서 제3회 同窓會定期總會를 열고, 金完基(1回卒) 同門을 新任會長에, 文明述(1回卒)·馬大田(2回卒)·曺奎(3回卒) 同門등 3명을 副會長으로 각각선출했다.

이날 同窓會에는 許衛院長을 비롯한 교수들과 1백여명의 同門이 참석해 會長선출 및 기념촬영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事務등 審査分析

企劉室, 15~18日까지

本校 企劉室(室長=민병천박사)에서는 15일부터18일까지나흘간에 걸쳐 學校전반의 事務및 財政에 관한 자체 심사분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學校法人에서 실시하는 定期監査를 앞두고 시행되는 이번 기획실 심사분석은 제12조에 「本校 事務상 장규정의 事務및 財政에 관하여 실시되는데 합리적인 사무개선에 그 목적을두고있다.

또한 이 연구기간(78년 3월31일限)동안 해당교수 및 학생지도에 주력하라는 강조했다.

이어서 李總長은 개교71주년을 맞는 금년은 東國발전에 大 전환점임을 강조하고 『새로운 決意로 본교가 祖國中興에 이바지하는데 대학으로 더욱 발전하되어야 할것이 아니고 말부했다.

또한 학교당국에서는 이번 채용에서 正敎院에 근무할 직원도 아울러 임명했는데 敎法師에 金玹洪(法名·부진장)스님, 幹事에 權五斗(佛敎)씨 등이다.

다음은 敎員 명단이다. 再任命된 敎員 명단이다.

◇敎授(5名)
▲李海浪(國語學) ▲安在求(政學科) ▲徐敏根(經營科) ▲李東熙(農學科) ▲元炳徹(大學院)

◇副敎授(1名)
▲李淳哲(法學科)

◇助敎授(4名)
▲朱錫球(法學科) ▲孚珣(統計) ▲金慈英(農生科) ▲金慈全(敎育學科) ▲尊任講師(14名) ▲吳亨根(佛敎科) ▲李水子(佛敎科) ▲權奇宗(佛敎科) ▲洪起三(國文科) ▲朴進浩(行政科) ▲鄭文祺(電算科) ▲徐謙昭(造園科) ▲李武熙(電算) ▲白壽鉉(電算) ▲朴完榮(敎育學科) ▲金俊哲(體育科) ▲朴一錄(家敎科) ▲李鍾燦(敎育部)

◇待遇敎授(6名)
▲金基琓(體育科) ▲權九榕(政外科) ▲裴吉奎(美術科) ▲徐口眞(敎育學部) ▲鄭與燮(大學院) ▲申奭鎬(大學院)

◇待遇副敎授(1名)
▲金錫鉉(會計科)

◇待遇助敎授(3名)
▲洪淑子(政外科) ▲印權植(化學科) ▲千宗淑(法學科) ▲柳允京(電算科) ▲李茂雄(敎育學部) ▲白水哲(會計科) ▲徐國吉(佛敎科) ▲金仁濟(統計科) ▲金八健(體敎科)

公告用紙마련

護國團서배부

學徒護國團(團長=魚潁浩·林學4)에서는 각종 게시 또는 校內의 공고용지로 사용할 4절크기의 統一용지를 마련, 사용하기로 했다.

今週一言

捨前捨後, 捨間越有. 一切靈捨, 不受生死.

과거도 버려라. 미래도 버려라. 현재의 이 내몸은생각도 말라. 마음에 걸리는 모든것 버리면, 生死의 괴로움 받지 않나니.

<法句經>

보리수

木蓮

한 坪짜리 정원이라도 좋다. 그로서 木蓮을 한 그루 꼬이 가꾸고 싶은 것은 욕욕 벌어지는 그 꽃이 하얀 蓮꽃을 내게 생각키우기 때문이다.

木蓮은 물에 나는 蓮과는 여러모로 다르다. 蓮이 진흙속에 자라는데에 대해서 木蓮은 산이나 물에서자란다. 蓮이 草根類에 속하는데에 대해서 木蓮은 灌木樹에속한다. 그러면서도 木蓮은 왜 꽃만은 찬란한 蓮꽃에 닮은꽃을 피우는가.

부처님은 몇 꽃송에서 섯고, 연꽃송에서도 부처님이 되도록 연꽃을 사랑하셨고, 연꽃을 귀히 여기셨다. 부처가 세상에 출현함은 『한 연꽃』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연꽃을 사랑하심은 연꽃이 더욱 진흙속에 피면서도 수가 있을까? 妖艶와 惡意와 僞善이 걷잡을수 없이 성행하는 더러운세상 중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꽃이 과연 보살의마음속에 있으면서 번뇌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차라리 바라볼 수 없는 중생의 꿈이 아닐는지 모르겠다.

洋磨집 담장 위로 화사하게 송이을 하얀 木蓮송이들이 그림으로 지나가는 내이웃들을 꼰다. 이른 봄, 바람은 아직도 쌀쌀한데, 그에게는 차라리 연꽃보다도 더 깊은 슬픔을 짓이긴 피로움의 昇華가 있는 것일까. 모든 번뇌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이 봄, 나도 한 송이 木蓮처럼 말없이 피어 오르고 싶다.

<高翊晋>

社告

第14회 全國男女高校生 文學콩쿠르 入賞者

史學科 古蹟踏査
江華, 湖南일대서

本校 文理大史學科및 師範大 社會敎育科, 國史敎育科의 春季敎育踏査가 지난10日부터 12日까지 강화도 및 호남일대의 사찰을 中心으로 2泊3日동안 있었다.

▲黃藩永(博物館長)·安晉鎭(史學)·金昌洙(國史敎育)·홍영백(社會敎育) 敎授의 인솔로 史學科全員과 國史敎育科 1, 2學年, 社會敎育科 3, 4學年등 總50여명이 參加한 가운데 가진 이번 古蹟踏査에서는 江華島 廣寺洞 호남일대의 寺刹을 中心으로 진행되었다.

한편이들은 지난8日(金) 出發에앞서 史學科硏究室에서 黃藩永敎授로부터 踏査에 대한오리엔테이션도받았다.

活力素로서의 登山

社說

오는 18일에제8회東國人 登山大會를 가지게 되였다。 敎職員、學生、同門동이 참가하여 心身을 함께 단련하는 學校的인 行事의 하나이므로 모든 東國人은 參與하여 이大會를 빛내주고 東國中興의 活力素를 마련하는 一助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오늘날 行이 날리 보급되어 個人으로 또는 적은 集團을 모아 山行하는것을 볼수 있다。 그러나 學校的인 登山大會같은 것은 一年中 한번밖에 없는 大行事이며、山行을 통해서 相互 紐帶意識을 培養하여 團體의 발전을 阻害하는 個人主義的 無關心의 표시이며、現代社會에서 열리트를 自慢하는 知性人들이 日常生活上 疎外를 自招하는 病弊의 하나이다。 團體의 한 構成員이 그러한 消極的行動을 일삼는한 그 集團은 전진하는 積極的活力의 源泉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登山大會의 參加率은 바로 東國人의 前進的隊列의 整備與否를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다。 公休日이아닌 나라 수업이 있는 平日을 택하여 學行되는 大會이므로 이에 參與하지 않을 뚜렷한 名分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활약한 獨逸의 世界的 法學者의 一人인 예링敎授는 山을 즐기는 까닭에 和蘭의 大學에서 초빙을 받았으나、그 나라는 運河와 草原뿐이며 山岳이 全無하다는 이유로 이를 拒絕하고 山岳과 湖水와 江의 自然美가 구비된 오스트리아 빈大學의 초빙을 受諾하여 그곳에 가서 3년간 滯留하였다고 한다。 서울처럼 7백만 인구를 가진 首都의 가까운 郊外에 훌륭한 山이 있어 쉽게 登山을 즐길수 있다는 것은 서울市民으로서 幸運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행운은 세계 어느나라 대도시의 시민으로서도 享有할수 있는 것이다。 서울 근교의 산은 서울市民들의 보배라고 할수있다。 이처럼 좋은 山을 옆에 두고 등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보배의 참다운 價値를 깨닫지 못하는 愚를 범하는 것이다。

韓半島는 地域的으로 극히 좁은 곳이지만 그속에 白頭山、金剛山、한라山、智異山등 名山이 많다。 이것은 美國、中國、유럽大陸같은 草原의 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自然의 寵靈이다。 韓國에서는 어디를가나 좋은 山이 있어서 登山을 즐길수 있다는 것은 외國人들에게 다는 이유로 이를 拒絕하고 山岳人登山大會에서 정한 코오스는 登山하기 퍽 쉬운 코오스이며 初步者들도 아무 苦痛없이 잘수 있는 꼬이다。 專門的인 登山家가 아니더라도 쉽게 走破할수 있는 꼬이며 많은 女學生들은 물론 많은 女學生들도 별집없이 參加해주기를 바란다。

現代文明人들은 때로는 古代의 野性的 原始狀態에 대한 鄕愁를 느낄 때가 있다。 서울 근교의 山들은 그 規模는 약간 작으나 그러나 野性美를 우리에게 充足시켜줄 수 있다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가령 獨逸의 西南部 슈발츠·발트의 山林地帶、北歐 스웨덴의 山林地帶를 보면 푸른 산림이 울창하게 茂盛하고 있으나、岩壁의 配合이 부족하여 登山家들의 野性美를 찾을수 없어 登山家들의 모험심을 刺激하기 때문에 기대이상의 성과를 두었다고 생각된다。

사실 우리 東國大學校에서는 오래전부터 몇개 學科에서는 졸업논문을 의무적으로 쓰게 하였고、國文學科에서는 졸업논문을 特輯號로 한 學會誌를 발행하기도 했었다。

今年度 졸업생터는 正規過程으로서 의무적으로 졸업논문을 제출하게했고、또 그 졸업논문을 심사해 본 결과 學生들에게 부탁하고싶은 문제는 오직 그 論題를 선정한 熱意를 엿볼수 있었기 때문이다。

學生들에게 부탁하고싶은 문제가 있다。 卒業論文은 앞으로 연구하는 학문의 準攻硏究가 되고 그 論題는 學生들이 처음쓰는 論文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정리하는데 그쳐도 좋다고 하는이가 혹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論文이란 性格을 띠고있는 이상 한걸음 더 나아가 문제점의 提示라든가 또는 그분야에관한 새로운 見解가 피력되었으면하는 느낌이든다。 오런대 卒業論文이 질적으로 나아져야 할것이란 뜻이다。

論文을 그대로 提出하게 하지말고 지도교수가 한번 通讀하고서 體裁를 바로잡아주고、文章을 수정해 주고、學說을 고쳐 주어 다시 整書시켜서 제출하게 한다면 指導보람도 있고、또 앞찬 卒業論文이 나올 것이다。

빗째는 학과나 학교 당국에 대한 부탁이다。 그것은 제출된 卒業論文을 死藏시키지 말고、매년마다 學報別로 卒業論文集을 발행함으로써 학교의 연학술위기도 조성되고 그 다음에는 졸업생들에게도 참고가 나올 수 있을것이다。 여기서는 學會를 부활시켜 卒業論文集의 재작성을 비롯해 同學科의 재학생들로 하여금 自擔하게 한다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지도교수의 지도도 쉽게 해지고、경쟁심을 일으켜 졸업논문의 질도 좋아질 것이며、졸업생들의 가장 高貴한 졸업기념품이 될 것이다。

〈文理大 國文科 敎授·文博〉 **金 起 東**

卒業論文, 여기에 問題있다

○……卒業論文制 施行이후 지난 2회에는 첫 졸업생이 배출됐다。 올 卒業豫定……○

○……춥도 이미 지난해 11월20일까지 論題를 파주임교수에게 제출、승인을 받아 3……○

○……월중에 敎務處를 경유하여 소속 大學長에게 論題提出및 指導申請을 했다。……○

○……또한 卒業論文作成計劃안는 지도교수들 거쳐 主任교수에게 지난해 12월까지 제……○

○……출했으며、이는 학장에게 報告토록 되어 있다。 復學및 再入學生은 이달말까……○

○……지 각 大學敎學課에 論題를 접수시켜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20일까지……○

○……확정된 지도교수는 1人當 10건이내의 졸업논문을 지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卒業論文은 指導敎授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되 11월의 심사전까지 10회이상의 지……○

○……도를 받아야 된다。 지난번의 첫 卒業論文시행과정에서 애초 이 制度의 실……○

○……시 이유이면 勉學雰圍氣造成과 교수와 학생지간 유대관계조성에는 많이 기여했……○

○……나 論文作成法、論文內容등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 문제……○

○……점과 유의사항을 무엇인가를 지도교수들을 통해 들어본다。

論文은 敎授의 自己整理

論題決定 빨리해야

우선 필자는 졸업논문제도 그 自體에 대하여 이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중의하나임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1954년부터 중단되었던것이 다시 부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어서도 學科에 따라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卒業論文은 평소의 「리포트」 이거나 (term paper)와는 달리 2백자 원고지로 百枚、또는 그 이상의 長文이 되기 때문에 대학을 마치면서 이만한 論文하나 써보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恨이 될 줄로 믿는다。 사실 百枚정도의 원고지에 글자를 아무렇게나 써서 메꾼다고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닐것이다。 그런데 어떤 「테에마」를 정하고 論理를 전개해 나가자면、그 작업은 대단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 작업이 대단할수록 본인에게는 그만큼 공부가 되고 그만큼 앞날에 서 졸업논문제 시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었다면 이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적해 보고자 한다。

대학졸업이 단순히 졸업만에 그친다면 모르려니와 졸업과 더불어 「學士」라는 학위를 얻는 것이므로 「學士」 「博士」의 경우와 똑같이 학위를 얻는 要件으로 졸업논문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둘이 겪어 보면 이 졸업논문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것이아니라 1955년부터 중단되었던것이 다시 부활된 것일뿐더러 중단된 기간에 있어서도 學科에 따라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李 載 昌
〈佛敎大 佛敎科·哲博〉

졸업논문제 시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었다면 이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적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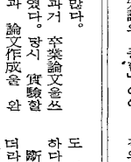
대학졸업이 단순히 졸업만에 그친다면 모르려니와 졸업과 더불어 「學士」라는 학위를 얻는 것이므로 「學士」 「博士」의 경우와 똑같이 학위를 얻는 要件으로 졸업논문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둘이 겪어 보면 이 졸업논문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것이아니라 1954년부터 중단되었던것이 다시 부활된 것일뿐더러 중단된 기간에 있어서도 學科에 따라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卒業論文을 作成提出하고 審査에 통과되어야만 卒業이 된다。 그러나 卒業論文을 구미려는 학생의 心境으로선 16년간에 걸쳐 긴 세월 硏磨한 學識의 形式 評價를 보내기 위하여 論文의 形式 評價를 따지기에 앞서、可能하면 獨創的으로 필요하면 敎授의 지도를 받아 적극적인 입장에서 個人的으로 追憶에 깊이 남을 훌륭한 論文을 작성하고 싶다는 慾望이 생기기마련이다。

그러기에 野心的인 進取的인 학생일수록 卒業論文의 論題 設定에 관한 相談을할 때 敎授 또는 學校側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또한 최대한 비중을 갖는것은 그리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졸업논문은 학점도 없고 시간표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자연과학 부문에서는 특히 論文작성에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것이 문헌이다。 이들 常의데 시설、消耗品 구입비용을 마련할 출처가 없다。 論文內容은 소요되는 施設또는 實驗硏究가 밑받침하는것이 通常이다。 또한 論文작성에는 實驗硏究가 밑받침하는것이 이만한 비중을 갖는것은 그리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졸업논문은 학점도 없고 시간표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자연과학 부문에서는 특히 論文작성에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것이 문헌이다。 이들 文獻조사작업의 대부분은 본교이외의 機關도서관、신세틀지지않을수 없다。

不便과 心的 피로감을 받는다고 하면 과장일지 모르나 일단 論文작성에는 實驗硏究가 밑받침하는것이 通常이다。 또한 論文작성에는 반드시 작성전의 준비단계가 필요하다。 論題를 확정짓기에 앞서 卒業論文의 문제의식에 따라 본서적을 읽은 다음에 논문내용의 윤곽을세우고、논문의 概要가 형성되면 論題결정과 格式을 차치하고라도 논문작성유무에 어떤 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 갈피를 잡지못하고 많이 있었던것으로 보여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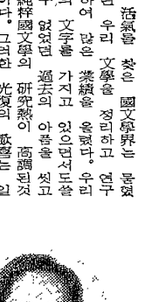


論題는 그분야에 관한 새로운 見解가 피력되었으면하는 느낌이든다。 오런대 卒業論文이 질적으로 나아져야 할것이란 뜻이다。

論文을 配定하여주기를 바라고 그러자면 몇것이 論題를 配定하여주기를 바라고

國文學의 現代的 課題

우리古典은 漢文學이 爲主 國文學범주、表記手段은 論外다



<敎養學部 專任講師> 李鍾燦

活氣를 찾은 國文學界는 물론 우리 文學을 정리하고 연구하여 많은 業績을 올렸다。우리의 文字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읽을 수 없었던 過去의 아픔을 씻고 純粹國文學의 硏究熱이 高調된것이다。그러한 光復의 歡喜는 일체의 文學活動을 순수한 한글表記化라는 旗幟을 내걸게 했다。

실지어는 外來文字인 한자로표기된 語彙까지도 순수한 우리말로 바꿔 보자는 한글전용의 주장아래 모든 語彙의 改造運動까지도 퍼졌다。

우리의 文字를 쓸 수 없게했던 植民政治에서 光復을 맞이한 民族感情으로서 순수한 우리글을 찾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그것이 위로 소급해서 과거 우리 文化生活의 주축을 이루었던 漢字 文學까지도 배격해 보자는 것도 歡喜에 넘쳤던 民族感情으로는 역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지난날 우리는 순수한 우리文字가 있으면서도 실제 文字生活은 한문을 주로 하여 왔다。고유한 문자가 있으니 外來文字인 한자를 廢止하자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趨勢가 학문을 연구해야 하는 기관에까지 미쳐 固有文字로 記寫된 순수한 한글文化만을 찾고 漢文文化는 白眼視하게되었다는 것은 反省해야할 여지가 있다。

우리 國文學界가 그간 남겨놓은 功績은 크다。未整理속에 있던 많은 作品을 찾아냈고, 또 한 訓詁的 解釋도 거의 完成되었다。그러므로 현재의 趨勢는 思想的 內容의 體系化에 많은 연구가 시도되어 우리의 主體的 確立을 이루어가고 있다。극히 다행한 일이다。그러나 이러한 分析 批評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의 文學을 世界的 思潮의 觀點에서 비교 연구할때 西歐的 思潮로 검토한다면 文學의 世界性이라는 일반화는 될지 모르지만 원래 相異한 文化 習俗이 제 멋대로 透視될수 있겠는가 하는 懷疑가 생긴다。그래서 현재는 순수문학의 批評方法을 우리의 思潮의 主流를 이루었던 性理哲學의 논리로 분석하려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여기에 한글文學이 아니었던 漢文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이럼 방면에도 많은 눈을 돌리게 되었고 作家나 作品의 연구도 많이 있었다。그러나 이것이 國文學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때 硏究方向의 출발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過去 우리 文學은 漢文學의 日常化로 순수國字가 있으면서도 常用化하지 못했다。한글 文學의 作品을 漢文學의 餘技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그럼데 性이라는 일반화는 될지 모르지만 원래 相異한 文化 習俗이 제 멋대로 透視될수 있겠는가 하는 懷疑가 생긴다。그래서 현재는 순수문학의 批評方法을 우리의 思潮의 主流를 이루었던 性理哲學의 논리로 분석하려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여기에 한글文學이 아니었던 漢文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古典은 漢文學이 爲主이냐 순수한 우리말 文學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國文學의 연구로서 漢文學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 文字연구가 있고 또 연구로서는 타당치못하다。學問의 연구에는 감각을 날게 놓지 않았다。그것은 옛날 文章을 驕麗하고 또 評하는 이도 이럼 이 있고 또

農村現地調査論文

農地制度, 그리고 實態

全燦益

"小作料 35% 以內가 多數"

土地上限 금정, 二毛作 적어

넓은 토지 경작의 욕구강렬

주요 作物은 벼와 잎담배이며 30분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위치에 있으며 촌락형태는 散村이다. 이 마을 총 35가구를 묵적 토서 직접조사 (이 설문지는 本校 朱宗相교수님의 지도아래 작성되었음)

Ⅲ. 계층別로 본 農民들의 見解

먼저 被調査者의 가정환경과 거기에 따른 의견의 차를 알아보기에 設定한 것이 1백% 보고 과 라다오는 거의 이 마을의 經濟 급째 있었고, 또 농가의 力수정에 기준이 될만한 물품에 불과한 실정이다.

<表1>

	㉠계층	㉡계층	㉢계층	㉣계층
3 보보험	57%	66.2%	50%	33.3%
4 정정제				
5 정정제				
무용	28%	15.4%	42%	33.3%
무 담	15%	15.4%	8%	33.3%

<表2>

	㉠계층	㉡계층	㉢계층	㉣계층
종나	71%	31%	41%	100%
삽		23%		
뽄		15%		
다	14%		41%	
다	15%	31%	8%	
없				
무 용				

지가 전혀 없음을 보면 알수 있었다. 소작지율을 보면 ㉠계층에서는 총 경지면적이 6, 618평 따라서 22%, ㉡계층에서는 총경지면적이 6, 400평 따라서 21%로 나타났다.

이처럼 총경지면적중 소작지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농민들은 더욱 많은 소작지를 원하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2정보 이상의 비교적 넓은 경지면적을 지니고있는 농가도 67%가 소작지를 빌고 싶다는 반응을 보여 계층농민들의 땅에대한 욕구의 강렬함을 알수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생활고도 적지 않은 것같았다.

㉢계층의 30~35%의 소작료 조건에 많은 농의 (42%) 불만 것이 눈에 띄며 45~50%라는 고율 소작제도 불사하겠다는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이 마을에서 大農계층에 속하는 2정보 이상의 경지면적을 지니고 있는 농가들이 고율 소작제를 바라고 있는점 (5대5제에 66%의 찬성을 보임) 도 약간 문제성이 있는 것 같다.

농지소유 규모는 얼마로 제한하는것이좋겠는가라는물음 (表1) 에대해서 영세농민인 ㉠계층의 농가는 3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는데 더 ㉡계층에서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가진 농가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노동력동의 제반여건으로보아 3정보도 실상은 한 농가에 벅찬 면적이거니와 무제한 넓은 토지 경작의 욕구가 강렬하다.

Ⅳ. 綜 合

농가들의 땅에 대한 욕구는 매우 강렬하게 나타났다. 소작을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3대 7제를 원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으며, 농지규모는 사실 리라 생각된다. 소작제도는 허용해야한다는 것이 많은 농민들의 의견이며 대부분의 농가들이 농지규모확대를 바라고있다. 나, 토지 상한제에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으나 이작은 공정성인 반응을 보이고있음을 알 수 있다.

<慶林大·農經科>

◇短篇小說

사랑의 技

徐容範(國文科) 金成郁(政外科) 畵

<1>

「紐」

지난 겨울 그는 〈바람〉만 먹고 살았다. 목적지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에게 부대껴 〈사랑〉을 키우면서 또한 봄을 흡뜨보며 산소용접 불꽃처럼 창백한 겨울과 만나고 헤어졌다. 그리고 사이 그의 삶빛은 성에처럼 뽀얗게 퇴색되어 갔다. 〈외톨이〉이였던 선배가 착실한 생활인으로 건재하고 있음을 그는 바람결에 얼어 들렸으며, 잘못이 없어 대학졸업 그 까지하던 어느 부잣집 딸네미의 소식과 어떤 〈놀음이〉의 무거우나 가냘퍼야 했던 죽음을 만났다. 빌딩 그늘속으로 밀어 붙이는 그 독한 바람으로 무신을 색기며 그는 울었다. 소주를 건고, 말라 서걱대는 연색볼 위에다 아는 이 죽음을 만나는 〈놀음이들〉의 술자를 느꼈다. 만나면 술집에서, 대방에서, 길에서 불처럼 퍼어나기만 했던 친구들에게선 술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았다. 놀음은 아마〈자기〉를 익숙하게 숨길 수 있는 꾼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혼자, 적해버리기 쉬운 겨울밤에 혼자 간 시간을 추억해내며, 힘을 기르고있었다. 참으로 지루한 하루하루하루들.

〈거리에서:〉

밤은 어둠으로 하여 더욱 명료한 불빛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멀리 밤거리로 밀져오는 겨울바람이 불꽃을 흔들고 지나갔다. 가게 밖으로 목을 내민 아크릴 간판이 창백한 불빛로 휘청거렸다. 마스크를 낀 사내가 연탄불을 쬐다 심란해진거지꾼이, 싱싱하는 희수의지 아가 어둠 속에서유 난히 희게 보였다. 그들은 찻집문의옆을 돌아 행길을 가로 질렀다. 이만큼지 나치는 자동차 불꽃이 몰고온 뜨한 바람이 비수처럼 손등에 꽂혔다.

「꼰돈모지 근처를 가고있는 기분이야」 의투성에 처박은 고개를 겨우 수가 중얼거렸다.

「말짤 작식…」

상락은 짧게 그를 쳐다보다 말고이미 전방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길건너에 우뚝 솟은 빌딩 옥상 귀퉁이에서 뚫개의 적등 (赤燈) 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적등은 마치 실로 꿴 전적렴 점선영화에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이어져 있었다. 상락은 자신이 커다란 울속에 갇혀버린 느낌과함께, 자기가 그림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인쪽으로 꺾지 가지!하나 보이는데。』

왼쪽으로 꺾인 좁은 골목안으로 희수가 상락을 끌어당겼다.

『문현이 생각난다。포장마찰 보다…』

희수의 뒤를 따라가며 상락이 말했다.

『그렇게 싸웠으면서도。미친 자아식』

희수가 잔뜩 움츠린 등을 돌렸다.

『작년 겨울에, 문현이하구 포장마찰했었어。』

상락은 갑자기에 떠진 달팽불을 놀려 말았다.

『알아。』

희수가 짧게 대답했다.

『…말했자만서두 참 재미있었어。』

상락은 여전히 희상조의 말투였다.

『불장이로 하지? 안주는。』

상락은 희수의 그런 투가 희랩게느껴졌다. 그는 투어법 고개를 고덕여보였다. 골목 안으로, 빨려들듯 듯 세차게 바람이 몰려들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상락소리가 들렸다. 카바이트 불빛이 얼게 바래어졌다가 이내 커져갔다. 그들은 천막을 들치고 들어섰다.

『…뭘로 할까?』

희수가 중얼거로 하기로 했잖아。』

『그래도 그렇지。』

희수의 눈빛은 마치 맞이라도 보듯 진열된 안주들을 훑고 있었다.

『그냥 공장어로 하지。』

『그걸로는 안돼。』

희수의 단호하게 들리는 대답엔 어딘지 뚜렷한 맛이 있었다.

『그러지 마시고 이걸로 하시죠。』

그들의 거동을 살피고 있던 주인사내가 슬인게로 권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게 뭔니까?』

상락은 절상에서 벌떡 일어섰다.

『보끼고기죠。안주론 그만이예요。양두 많고, 에 그만인죠。』

주인사내의 금니가 반짝거렸다.

『얼맙니까?』

『비싼데, 뭐 만 거 없어요?』

『만 거라뇬…오장어도 좋고…뭐…』

『아저씨, 그러지 마시고 홍합하고 곰장어 두 마리만 해줘요。』

『그렇게 하죠。』

사내의 미간이 울스러 들었다. 카바이트 불빛이 몹시 흔들렸다. 공장어를 굽는 연기가 장막 안을 채워나갔다. 그리고 채워진 연기는 떠진 천막 틈으로 뿜어져 달라났다. 그들은 잔술을 마셨다.

〈내 키만큼 사랑을 해 봤으면〉상락은 왠지모르게 자신이 마를 모래알처럼 부서져 내린다고 느껴졌다. 무엇인가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그는 아무 것도 잡히지 않는 그 안개와 같은 것에 침몰하고 있는 것같기만했다. 갈날갯이처 거울 거울을 만나면 아마 안경알처럼 투명한 에지가 쳐여질 것이고 내면의 쪽이 더 확대되리라 믿었던 자신에게 자신이 여지없이 배신을 당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래그는 잔뜩 젖은 채 거리에서, 다방에서 뜨로사 말들의 겨울과 악수를하고 헤어지곤했었다. 서영이와도 그랬었다.

「아주 다른 사람들로 만나는 것 같은데」

서영과 헤나 오랜만의 해후를 상락은 덧없게 보내야 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내놓이는 껍질이, 성 (城) 이 너무 견고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여상락은 견고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득히 멀어져간 그 것이 아니었다. 〈에이아가를 끄집어내지않고 안되었다. 〈아무리 추한 과거라도 그것은 후일 놀음하게 채워이 된다〉는 전제와 함께 그는 지경었다. 단고바지 입은 미친년 앞지 어떤 놈이 그랬는지 그놈도 처럼 맞을거야。정신이 돌아버렸는데 키가나 하겠어。틀리는 말로는 애를 낳긴 낳잖리교 쥐운데라서 얼어죽었다더군…。 연애겠나만 그때 나가 욱만학교 애들이 무슨 연애겠나만 그때 나가 누구에게서 연애편지란 걸 받았는지 알고 있지? 그 자식이 누구던라…。서연은 소리없이 웃고만 있었다。

『홈리간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앞으로 흠뜯잘 이야기나 하시지。』

『그런지지。』

『뭡같은 말씀인가?』

『뭡같은 말씀은… 아주 지극한 현실주의 아자씨로군。』

상락은 갑게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그러면서 상락은 서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이 오랜만에 만난 국민학교동창생 서영。그러나 이제는 어엿한 한 여자로서의 서연。상락은 그녀의 눈빛을 읽으며 자기 자신이 혜 이렇게 흔들려야 한는가 몹시도 생각해 보았다。

●부정외래품 팔아내어 법령사회 이욕하지.

순하고 부드러운 쥬단학 새로본화장품

순하고 부드러운 「쥬단학 화장품」의 진가는 결코 하루아침에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품질, 빛나는 색상, 그리고 천연원료의 하모니로써 우리 화장품의 품질을 세계 수준에 도달시키는데 성공한 「쥬단학」 연구진의 재산은 오직 양심과 성실입니다. 특히 순하고 부드러운 「쥬단학 새로본 화장품」의 아쿠아라이자 (Aqualizer-EI) 미용 효과는 당신의 피부를 싱싱하고 촉촉하게 보존함으로써 「쥬단학」제품의 귀한 진가를 다시 확인시켜 드릴 것입니다. 순하고 부드러운 「쥬단학 새로본 화장품」

순하고 부드러운 쥬단학 새로본 화장품

쥬단학화장품·단학맨담화장품 본포 한국화장품공업(주)

■ 쥬단학 새로본 폼크린싱크림 100g ■ 쥬단학 새로본 모이스춰 밀크로션 140ml ■ 쥬단학 새로본 콤팩트 13g ※미용상담실 ● 서울본사 (4) 6135 ● 부산지점 (43) 8648 ● 대구지점 (4) 1118 ● 대전지점 (3) 7666 ● 광주지점 (5) 2222

빛으로 만난 데이트

李恩心

봄 하늘 금잔디
빛 부신 해잔디

멍들은 땀 어루어
물든 햇살의
여린 손끝.
한 줌 뿌리는
별 쟁쟁 소리…

가시 날리는
동그란 어깨 빛,
밟아오는 해질 무렵
숨쉬는 金髮

황금빛 노을에
빈 지저귐으로 만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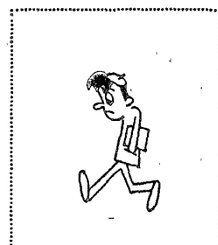
빛으로
입맞추며
빛으로 만남 데이트

<文理大·史學科>

괴사리의 辯

만·화를 곁내고서.

李允圭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과묵하지도 않니다』 사리였나 봅니다。

메아리

▲오는 18일, 東國人 登山大會가 北漢山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東洋人의 自然觀이다。 讚歌는 것만 정작도전하며 紀念하기 19를 登山 경북하려는 感氣가 결여된 열흘간에 걸쳐 종남 봉전군 某 마을에서 조사했다。이곳의 개 大會는 東國人 것 같다。이러한 마을 유가 황을 살펴보면 전답은 약 30 여 健脚을 다루고 짐은 색로운 創造 발식 우리 고유의 古典 일에도 정보로서 각호당 평균 0·6 이한 자리에 보탄다。 鄕歌가 정보이고 최근에 전기가 들어왔 속에서 -건강한 東國人 의지와 내일을 찾게된다。

Ⅱ. 調査對象및 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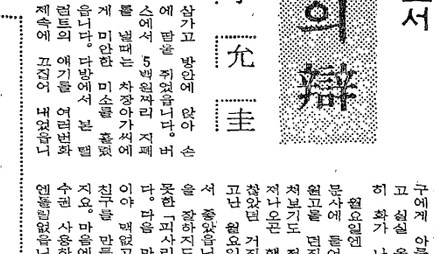
76년 12월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종남 봉전군 某 마을에서 조사했다。이곳의 개황을 살펴보면 전답은 약 30 정보로서 각호당 평균 0·6 정보이고 최근에 전기가 들어왔다는 일부의 의견으로 무산되고 말았다。이와같은 경로를 밟아오는 가운데 農地制度 문제는 점점 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일으키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農民들은 과연 이 農地制度에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조사, 분석해 보고자 함이 本考의 목적이다。

Ⅲ. 綜 合

농가들의 땅에 대한 욕구는 매우 강렬하게 나타났다。소작을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3대 7제를 원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으며, 농지규모는 사실상 3정보로 제한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소작제도는 허용해야한다는 것이 많은 농민들의 의견이며 대부분의 농가들이 농지규모확대를 바라고있다。나, 토지 상한제에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으나 이작은 공정성인 반응을 보이고있음을 알 수 있다。

<慶林大·農經科>



山! 山! 山!

李允圭

81—1 버스를 뛰어가 놓친 그때 친구는 자장면 한그릇을 건져올릴수 없게 되었다는 그 때 10원을 달라고 손을 내민 그女子가 우리들을 우울하게했었다。 욕표였에서 그 그림。밑에 펼쳐지는 삶의 현천사·비극현천사, 사랑의 배경의 변천사등을 自然觀의 변천사등을 國文學의 구조 속에서 파악해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다。

論理를 펼쳤지만 論理의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姜同門은 현재 쫑생고교에 재직중이다。

<筆>

現役의 韓國文學을낡카로이 파헤치며 열렬을토하는 姜同門의 표정은아주 단호하다。

앞으로 國文學史 (詩歌文學) 을 정리하기 위해 세분화·전문화의 작업을 통해 國文學의 修辭技巧사상의 변천사·비극현천사, 自然觀의 변천사등을 國文學의 구조 속에서 파악해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다。

論理를 펼쳤지만 論理의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姜同門은 현재 쫑생고교에 재직중이다。

<筆>

姜成千 同門 評論家로 데뷔

姜成千 (72·國文科卒) 同門이 評論「헤어짐과만남」으로 現代文學 4월호에 추천완료 됨으로써 문단에 데뷔했다。

現代文學 1월호에 실린 姜同門의 韓國詩歌文學論 (70년도) 을 수상한 경력도 있으며 同人誌「外人」을 통해 꾸준한 활동을 해온 노력파。

『韓國詩歌文學論에 새로운 文學論을 도입하여 종래의 註釋的인 해석에서벗어나고 우리 詩歌文學을 분석하고, 해어짐에서 만남으로 지향하는 문학적課題를 제시하고 있는 姜同門은 자신은 항상 아 문학의 한 분야이다。 반항이 젊은 놀은 감상의 즐거움을수 기보다는 연구와 분석만 이 있다고。

『제기할, 요샌 왜하늘이 뇌락게 보이지?』『어제 과음했나 보이?』

<女理大·國文科>

國文學의 새로운 照明

"純粹參與 조화에"

어나고 싶었고 또 제나 름대로 國文學史를 정리 해보고자 이런한 평론을 쓰게 된 것이지요。』 라고 정리한다는 姜同門 「헤어짐과 만남」에서 原初的 物質想像力을 가지 어 이런 문학이란 순 수와 참여의 調和가 이 在化 되었으면 합니다。

愛國詩 101人集 「祖國이여 江山이여」

<韓國文人協會編 月刊文學社刊 非賣品>

101篇의 詩를 詩集 수록한 이 이전 이 1965년 이 愛國詩人 들의 작품 이 가운데서 애국심과 國土에 대한 愛情 이 담긴 詩만을 골라 이것을 1·2·3部로 구분하여 수록한 것이다。

1部는 애국심을 鼓吹한 작품을, 2部는 國難克服의 의지와 겨레의 鬪爭相을, 3部는 祖國江山을 예찬한 詩로 분류하였다。

新着圖書

겨레의 빛

<河瓊燦著·精華文化社刊 850원>

이 책의 副題는「歷史를 지켜온 永遠한 韓國人」이다。내용의 줄거리는 역사에 길이 빛나는 護國의 巨星 이덕분을 선정해서 그 애국 충정과 용기를 그린 여덟분의 전기를 담아놓은 작품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더 두터이 하고, 난국에 대처하는 용기와 슬기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韓國史의 再照明

<讀書新聞社編·非賣品>

이 책이 의도한 바는 韓國史의 史實을 단순한 하나의 지식으로서보다 그속에 담긴 의미를 모색하는데 있는것 같다。다시말하면 現代史의 연구를 지나간 한 국사의 흐름 속에서 찾으려는데 있을는지 모르겠다。讀書新聞이 펼쳐헤전에 시도한 이 「韓國史의 再照明」이란 기획은 한국사학계에 커다란 파제를 안겨 준 셈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한국사의 전문적 연구와 대중화와를 조화시키려는 노력 위에 하나의 里程標를 세우는 구실을 해주었다고 믿는다。

<圖書館제공>